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9월 5일(일) 총 2매			
담당 부서 문화유산과	담 당 자 • 문화유산정책팀장 오동철 ☎440-4471 • 담당자 이상정 ☎832-9412	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상륙작전기념관,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 모두 지운다.

- 인천시, 10월 중 현판·헌시 비 교체 -
 - 헌시대신 6·25 참전국명 새기고, 현판의 휘장·이름은 삭제 -

올 해 10월이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현판과 헌시 비를 10월 중 교체한다고 밝혔다.

현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전시관과 자유수호의탑에 부착된 현판과 헌시 비에는 기념관 건립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. 현충탑 앞의 기념식수 표지석은 지난 2020년에 철거했다.

인천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석비 철거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부터 역사·보훈·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교체 여부를 검토해 왔다.

그 결과 자유수호의탑에는 헌시를 대신해 6·25전쟁 참전국명을 새길 예정이며, 현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휘장과 이름을 삭제해 재설치를 결정했다.

한편,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6·25전쟁 당시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1984년 9월 인천시와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됐으며 2003년 5월에 현충시설로 지정됐다.

<붙임> 자유수호의 탑(헌시)

